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4월 11일(주일) 제1339호

온누리 온라인 심방!

4월 5일부터 11월까지 공동체별로 한 주에 한 순씩
개인 및 부부의 삶과 기도제목 나누고, 영적 돌봄 제공

이주선 집사(성동광진공동체)는 최근 성
인공동체 온라인 심방을 경험했다. 청년부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무척 기뻐했다. 이주선
집사에게 온라인 심방은 영적 멘토링을
받은 것 같았다. 그만큼 만족스러웠다.

“목사님께서 저의 질문과 고민을 잘 들
어주시고,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셔
서 좋았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신뢰가 생
겼습니다. 그 덕분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부담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목
사님께서 저의 영적 멘토가 되어서 챙겨
주신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이 생긴 것은 말할 것
도 없어요.”

온누리교회가 지난 4월 5일(월)부터 온
라인 심방을 시작했다. 온라인 심방은 한
순을 집중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목양
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성도와 성도의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는 온누리교회의 또
하나의 노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에서도 성도들의 영성이 성장하도록 돕는
탁월한 양육이기도 하다.

온라인 심방은 4월 첫째 주(4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공동체별로 한 주에 한 순씩
온라인(영상, 전화 등)으로 진행된다. 담당
교역자가 각 순의 개인 및 부부를 온라인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으로 만나서 삶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영
적 돌봄을 제공한다.

온라인 심방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성도 모두에게 열려있는 영적인 기
회다.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다락방, 순)
을 따라 진행된다.

이기원 목사(공동체본부)는 “온라인 심
방은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비대면

사회에서 충분한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성도들이 온라인 심방
을 경험하면서 참된 기쁨과 회복을 온전
히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3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 캠페인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로 제출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
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이 계속 이어진다. 이번에는 백혈병소
아암협회 헌혈증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
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4월 30
일(금)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
스 목회지원실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에는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38개의 교회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4월 4일(주
일) 막 내린 온누리교회 대한민국 피
(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에는 성도 1,036명이 참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

온누리교회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을 4월
10일과 11일, 17일과 18일에 한다.

굿월스토어 기증캠페인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전후로 2주 동안 기증품을 모아 굿월
스토어에 기증하는 행사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설치된 굿월스
토어 수거함과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기
증품을 모으고 있다. 대형가구, 설치가 필요한
전자제품, 오래된 아동 전집, 큰 플라스틱 장
난갑, 사용한 침구, 속옷 외에 모두 기증할 수
있다. 기증품은 굿월스토어를 통해 장애인 자
립과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된다. 굿월스토어
지점을 방문해서 기증하거나 택배 및 방문 수
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1670-9125

예배당 예배 예약 필수!

예배당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
야 한다. 예배당 예배 예약은 온누리교회 홈
페이지(www.onnuri.org) 예배예약시스템,
스마트폰 앱 ‘온누리 예배예약 (구글 플레이
에서 ‘온누리 예배예약’ 검색해서 다운로드),
전화로 하면 된다. 전화 예약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로
전화하면 된다. 등록교인만 가능하다.

예배본부는 “상대적으로 좌석 여유가 있는
토요주일예배에 참석하면 좋겠고, 예약한 예
배에 불참할 때에는 반드시 전산상으로 예약
취소를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서빙고 02-3215-3263, 3661

양재 02-570-791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개설!

4월 17일부터 신청, 20세 이상 대상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개설된
다. 5월 11일(화)부터 모임을 시작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공동체 등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순예배에도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직장, 입원, 이사, 이민, 입대
등)으로 인해 공동체 소속이 어려운 성도, 장
례 도움이나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는 20세 이상 성도들이 대상이다. 미
등록 교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에 참여하면서 새가족 과정(온라인)을 이수하
면 된다.

신청은 4월 17일(토)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신청
한 성도들에게는 모임 참여가 가능한 Zoom
링크가 전달된다.

온라인커뮤니티 모임은 5월 11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
안 온라인으로 전체모임과 소그룹이 진행된
다.

여성민 목사(전도본부장)는 “공동체에 등록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소식이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성도들, 교회 등록 과정을 멈춘 분
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온라인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성도
들에게 풍성한 영적 양식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의: 02-3215-3214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미안마의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오전 9시 영상 오픈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법을 부정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실정법을 만들고 집행한다고 선전한다. 노동자들이 공산당에 권력을 맡기면 정의롭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들의 법 집행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법 해석은 유연하고 신축적이어서 진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 체계라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은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들이 소련의 전체주의적 독재와 강제노동수용소를 통한 압제에 진저리를 치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념은 마르크스의 사상에 기반을 두지만, 파리의 부르주아와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념과 삶은 심각한 괴리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법체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시위와 충돌을 통해 전통적인 규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비주류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며 정의라고 선전한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비주류들을 규합하여 자기들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다.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과 함께 성혁명의 다양한 지지자들을 포함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법 정의는 억압받는 성소수자의 해방이지만 그 결과는 창세기 1장의 생육문화명령을 따를 수 없게 하며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과 가정의 제도를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법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실정법에 대해서도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뉴에이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브라마와 아트만의 합일을 방해할 수 있는 엄격한 법질서에 대해 반대한다. 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규범이 방해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내면에 대해 진실하기만 하다면 선택하는 어떤 행동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역시 신법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스스로가 법(self law)이라고 생각한다.

이슬람에는 코란과 수나, 이즈마와 키야스 등 네 개의 근원을 통해 형성된 법(샤리아)이 있다. 샤리아는 그들의 공적인 법일 뿐 아니라 가정, 회당, 경제, 사회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따라서 이슬람의 세계관은 삶의 전 분야에 대해 샤리아를 지키려는 일관성을 가진다. 문제는 그 절대적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의 권리는 극소수의 종교지도자와 왕족들에게만 있다. 무슬림 국

가에는 삼권분립도 없고,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샤리아 해석에 대해 무조건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독재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 못 한 이스라엘이나 형식에만 얽매인 유교의 도덕률 혹은 율법적인 기독교처럼 권위적이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무신론적 세계관이나 뉴에이지 세계관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문제이다. 이슬람은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자의적 독재적으로 해석해서 사육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주류가 되어 신법을 국민 모두가 지키는 국가는 없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춘 실정법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속에서 기독교인은 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국회로부터 지방의회까지 입법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은 신법의 정신을 실정법에 반영시킬 임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법에 반하는 내용이 실정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시민으로서 기독교인은 신법의 정신이 실정법으로 반영되며 신법에 반하는 내용이 입법되지 못하도록, 국가의 예산이 정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사회단체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판관으로서 사법부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은 실정법 조문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신법의 정신을 발견해내

어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에서 유지되는 방향으로 판결해야 한다. 하나님의 신법을 준수하는 자를 보호하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법에 명시한 응징을 가하여 법질서가 지켜지게 해야 한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법 앞에서 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 재판관은 모든 범죄의 재판에서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극형에 해당하는 처벌은 공식적인 고소와 심문의 법적 절차를 거쳐, 또 확실한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될 때까지 형 집행을 삼가야 한다. 심증은 있지만 불확실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진화론에 기초한 변화무쌍한 실정법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확고하고 명확한 기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 기반을 통해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절대적인 인권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법체계로 인해 자기 행동의 책임을 지게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신다. 타락한 인간의 신법에 어긋나는 모든 죄를 불법으로 처벌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 오직 정의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실 뿐이다.

묵상: 내가 있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방안이 무엇인가?

인본주의 우상에 대한 고찰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가져온 허상(虛像)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바로 서가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역사상 수많은 이단적 집단들이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의 믿음을 크게 미신적 신앙과 인본주의 철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신적 신앙들은 인간의 헛된 상상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해가 진리의 세계관(성경적 세계관)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인본주의 철학은 시대를 넘나들며 지금까지 집요하게 참된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이성에 의존한 자주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귀에는 합리적이고, 아름답고, 선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을 외쳤던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금지 시킨 이래 미국 사회는 영적, 정신적, 가치적, 리더십을 잃기 시작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인본주의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인간을 위

한다는 그들의 구호는 거꾸로 인간을 타락시켜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고 만다.

인본주의적 시각의 중심에는 '인권(人權)'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본주의는 루소의 소위 '천부인권론(天賦人權論)'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언뜻 들으면 매우 그럴듯한 말이고, 귀에도 들기 좋은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천부(天賦),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인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없이 하늘에서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상상적이고 비실존적인 철학 내지는 속임수

일 뿐이다.

인권에 대해 크리스천이 알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본주의와 기독교 진리 사이에 행위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인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며 타인들에게도 "당신의 인권을 주장해서 쟁취하라"고 강하게 요청한다. 반면 창조주를 아는 성도들은 자신의 권리(인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인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크리스천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인간의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치르고 죽으실 정도로 귀중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이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 책임의식 등을 느끼게 된다. 스

스로의 행실로는 전혀 존귀하지 못한 자를 일방적인 은혜로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자에게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책임감을 느낄 능력이 없다. 그들은 창조주가 계심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피조물인 줄도 모른다. 그들의 육신이 거저 생긴 줄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무슨 권리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착각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져왔다. 인본주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공산주의가 태어났다. 인간의 책임을 망각한 채 권리만 함부로 주장하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정대서 장로
(푸른누리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위트니(E.S.Whitney)는 “그리스도인들은 티백(tea bag)과 같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물과 같은 재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모진 시험 속에서 나타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당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고 권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5절).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를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지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는 확정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함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과연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대적자들에게 동조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면으로 반격을 합니다.

바울에 대하여 던져진 수많은 공격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연합 가운데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못 믿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일 뿐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천상으로 올라가시

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첫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기심, 두려움, 세속적인 시각, 세속적인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셋째,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 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 2:20).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체험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인 믿음, 사탄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은 왜 그를 부활

하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요, 꿈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이 십자가와 연합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역사적 유물로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썼다는 세마포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유적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흔적은 땅에 있는 흔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향력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나 전기 등을 통해 감동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거짓 영들을 쫓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아키게 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온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죄악에서 떠나며,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빌 3:10-11).

사도 바울이 한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등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미국 맨하탄에서 사역하는 팀 켈러 목사가 이 계십니다. 두란노에서도 여러 좋은 책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리디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리디머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신학교 교수일 때 배웠던 어느 15세 목사님과 제가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저와 대화한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0%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팀 켈러 목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가요? 저는 5%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퍼센트 정도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초 아닙니까? 새신자반에서 다루는 주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다면 몇 퍼센트라고 대답했을까요? 교리적,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체험했는지, 그것을 날마다 살고 있는지가 진짜 아는 것입니다. 정보로써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논리적, 교리적,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썼지만,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시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질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생명 경시 풍조를 바꾼다 1. 자살유가족의 행복할 권리

“당신의 오늘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유가족 연간 7~14만 명 추정
자살유가족 위한 추모 공간, 심리부검, 자조모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율 1위가 대한민국이다. 2019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1만 3천여 명이다. 하루 평균 약 38명이나 된다. 자살이 끝이 아니다. ‘자살생존자’가 남는다. 자살 사건 이후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자살생존자’라고 부른다. 가족, 친구, 지인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재난난 같은 심리적 상흔을 입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자살유가족들은 고인을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살 현장을 목격한 충격, 자살 실행에 대한 상상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경험한다. 사회적 시선이나 관계, 경제적 문제, 고인의 흔적을 정리하는 과정에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자살유가족들이 행복할 권리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자살유가족도 분명 행복할 권리가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당신의 오늘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자살유가족의 슬픔과 아픔, 치유의 과정을 담은 그림책 〈열세살어른이〉 저자가 쓴 문장이다. 기자가 이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내색하지 못하고 삼키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의 죽음 이후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할 권리, 살아갈 권리, 행복할 권리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가족을 자살로 떠나보낸 자살유가족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한국에서 하루 평균 37.8명이 자살했다. 해당 기간 총 1만3,79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평균 6명의 자살유가족이 남는다. 우리나라 자살유가족은 연간 최소 7만 명에서 14만 명이 발생하고 있다.

자살유가족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이별을 경험한다. 엄청난 상실감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먼저 떠난 이에 대한 분노와 슬픔 등을 안고 살아야 한다. 애도의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다.

가족이 떠난 슬픔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여러 문제가 물밀 듯 밀려온다. 고인의 죽음 이후 유가족들이 알릴지 말지 결정하는 것

부터 숨 막히는 전쟁 같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 따르면, 자살유가족의 71.2%가 편견과 비난의 우려 등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못했다. 사람들의 차가운 편견과 무수히 쏟아지는 질문은 자살유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뭐했어?”, “도대체 왜 그랬대?”, “자살하면 지옥 간대”, “이제 관장을 때도 됐잖아?”, “이제 그만 잊어라” 등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자살유가족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고인이 남기고 간 채무 등 경제적인 문제, 고인의 흔적을 정리하면서 부딪혀야 하는 행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자살유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자살유가족의 마음이 잘 표현된 시가 있어 함께 나누다. 2018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식 추모시 은상 수상작 ‘여전히’ 다.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런 사고는 없었다 / 그저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 당신의 마지막 모습 / 그걸 지워내기 위한 내 소설이었다

왜 나는 당신의 죽음을 떼뗄이 말도 못했는지 / 당신의 죽음을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했는지 / 마음 속 깊은 곳에 그를 품고 숨긴 채 그렇

게 가슴에 묻었다

당신을 잃은 슬픔과 / 당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 당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괴감이 / 멎든 피부처럼 마음 여기저기에서 피어올랐다

스물 넷 내 어깨 위 한 가득 느끼게 된 / 당신의 역할, 부담 그리고 그 무거운 결심 / 당신의 마음이 그 모진 바깥바람을 견뎌 뒹고 부서질 때까지 / 그저 따뜻하게 지내기만 했던 당신의 보물들

일곱 번의 계절을 지나 이제는 / 당신을 비로소 조금씩 보내려고 하는 / 그 치열한 노력

그러나 당신의 부재 한 가운데에서 / 당신의 존재를 느낀다 / 여전히

자살유가족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보낸 자살유가족들이 위로받고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선 자살유가족이 고인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자살유가족 전용사이트 ‘따뜻한 작별’을 운영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충분한 애도 과정을 갖지 못한 유가족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다. 고인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 추억하고 싶은 경험, 기억하고 싶은 모습 등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따뜻한 작별은 자살유가족을 위한 추모 공간 일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움도 준다. 법적/행정 절차 및 상담/복지 서비스, 사별 슬픔 검사 및 지속비애검사 등 자가검진 시스템, 도움 요청 기관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살유가족 심리치료를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심리부검’과 ‘자조모임’이다. 심리부검은 자살유가족 심층 면담을 통해 사망자의 자살 원인을 찾아내면서 유족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과정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조모임은 자살유가족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는 공간이다. 자살유가족이라는 공감대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말하기 힘든 속마음을 공유하고, 조금씩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자조모임은 지자체나 종교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자조모임은 민간 자조모임인 자살유가족 온라인 카페 ‘미고사(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다.

크리스천 자살유가족을 위한 자조모임도 있다.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음이음예배’다. 마음이음예배는 크리스천 자살유가족을 위한 정기예배다. 자살유가족들이 예배와 기도, 목회상담 등을 통

해 신앙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도림감리교회(서울 영등포구 도신로19길 5)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후에는 ‘로템나무’라는 이름으로 자살유가족 자조모임을 진행한다.

마음이음예배의 모든 시스템은 유가족에게 맞춰 있다. 설교 말씀과 찬양까지 유가족을 위해 선별한다. 예배 외에도 전문가 특강, 온라인 모임, 상담 프로그램, 성경공부, 문화행사 등 자살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이음예배와 로템나무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자살유가족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라이프호프 대표 번호(070-8749-2114)로 전화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지역 보건소, 상담센터, 정신의학과 등에도 연결해준다.

장진원 목사(라이프호프 사무총장, 도림감리교회 담임)는 마음이음예배와 같은 자조모임이 한국 교회에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자살유가족에게는 주변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해도와 관심에 따라 자살유가족들의 회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자살유가족들을 품고 이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가족의 자살로 어려움을 당한 자살유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돌보는 일에 힘쓰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진원 목사가 자살유가족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자살유가족에게도 행복할 권리, 즐거울 권리, 삶을 살아갈 권리, 마음껏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자살유가족들을 도와드립니다

- 자살유가족을 위한 추모 공간 ‘따뜻한 작별’
홈페이지: www.warmdays.co.kr
- 자살유가족 온라인 카페 ‘미고사(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홈페이지: cafe.daum.net/suicidesurvivor
- 자살유가족을 위한 전화상담 및 자조모임 ‘한국생명의 전화 유가족 지원센터’
문약: 02-763-9195
- 크리스천 자살유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마음이음예배 로템나무 모임’
문약: 070-8749-2114
- 중앙심리부검센터 자원서비스 ‘치료비 지원’, ‘심리부검 지원’
문약: 1577-0199

NGO 더멋진세상 후원자들의 고백 그리고 간증

“우리가 함께 꿈꾸는 더 멋진 세상!”

NGO 더멋진세상이 오는 4월 24일(토)과 25일(주일) 정기후원약정을 실시한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이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이다. NGO 더멋진세상 후원자들은 하나 같이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더 멋진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을 앞두고 후원자 3인(노정숙 집사, 문형남 장로, 조성수 장로)이 꿈꾸고 있는 ‘더 멋진 세상’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노정숙 집사, 문형남 장로, 조성수 장로(왼쪽부터)는 더 멋진 세상을 꿈꾸며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하고 함께 봉사하고 있다.

여성들이 건강한 세상

산부인과 의사인 나는 여성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다. 특히 가난한 마을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연약하고 병든 여성들에 대한 마음이 크다. 그녀들의 삶이 건강하다면 그녀들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랄 수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면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취약계층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성보건지식을 알려주고, 여성용품들을 공급하

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다.

나는 해외의료봉사를 하러 가기 전에 그곳의 주민들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들을 더욱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선교사님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도 부르짖게 될 때 아무에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고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총체적선교를 담당하는 선교단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 NGO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 게다가 지구촌 이웃들을 일반적으로 돕는 게 아니다. 그들의 자립을 돕고, 그곳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또한 NGO 더멋진세상만이 가진 큰 장점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일반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개발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도움을 주고 있다. 내가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는 열악한 여성들이 있는 곳에서 섬길 것이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NGO 더멋진세상을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우리의 도움이 건넌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 노정숙 집사(서초C공동체, 산부인과 전문의)

아이들의 웃음소리, 희망이 넘치는 세상

아픈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리다. 그래서 인지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나서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각기 다른 모양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창조의 원형이 깨진 모습이 가득하다.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는 세상이 바로 내가 꿈꾸는 더 멋진 세상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회복하는 소망

이 가득한 세상을 꿈꾼다.

2016년 초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HIV에 감염되어서 고아로 자라거나 결혼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HIV감염아동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HIV에 감염된 아동들의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간단한 처치와 처방을 해주었다. 그렇게 시작한 네팔 방문이 매년 이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기 전까지 해마다 계속되었다. 아이

들의 건강상태를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성장상태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에 신경을 쓰고 있다.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서 소외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 그 자체가 큰 감사이자 은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라고 하셨다. 나 역시 큰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

네팔 HIV 감염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아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직업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로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NGO 더멋진세상이 아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NGO 더멋진세상의 지난 10년을 돌아해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역사 속에서 나의 작은 섬김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의 10년도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향기로운 제물로 드러지기를 소망한다. / 문형남 장로(성동광진공동체, 소아과 전문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세상

나는 가난을 맞으며 힘든 게 무엇인지 절감하는 성장기를 보냈다. 그래서 내에게는 항상 모든 사람이 가난과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다. 비록 이 땅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꿈일 수도 있지만, 그 꿈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랑과 마을과 지진 피해

를 입은 네팔을 방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가난한 삶은 물론이고,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열방을 품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뭇잎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나에게 그곳이 너무 열악해 보였다. 그래서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

NGO 더멋진세상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선교지 주민들의 삶이 바뀌

고, 현지 교회가 부흥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총체적선교라는 NGO 더멋진세상의 비전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한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보낸 지난 10년 동안 르완다, 세네갈, 네팔, 필리핀, 라오스 등 여러 사역지를 참 바쁘게 다닌 것 같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

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개인사를 뒤로 하고 무조건 사역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 같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파도를 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잘 알기에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

10년 후에도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지에 내가 있을 것 같다.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을 것 같다. 전 세계 어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NGO 더멋진세상 지부가 세워지는 꿈을 꾸다.

/ 조성수 장로(김포공동체, 실업인)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풍당 사용기

“직접 경험해봤더니 정말 좋습니다!”

CGNTV가 한국 최초로 출시한 기독교 OTT 풍당(이하 풍당)이 오픈 2달여 만에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회원가입자 4만 3천 명을 돌파하고, 국내외 70여 개 교회에서 “풍당을 온라인 맞춤 양육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국내외에서 풍당을 귀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고백도 줄을 잇고 있다. 풍당을 목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목회자를 만났다. 그들에게 풍당의 장점과 역할,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풍당을 활용한 목회에 대한 기대감도 엿볼 수 있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콘텐츠를 보다 ●●●●● 복음에 빠지다

fondant

‘퐁당’ 앱 이렇게 활용하세요

STEP 1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퐁당’ 앱 다운받기

STEP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소셜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하면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STEP 3 신앙성장영역 점검하기
신앙성장영역 점검을 통해 신앙 유형을 알려준다.

STEP 4 맞춤 콘텐츠 추천
신앙성장영역 점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STEP 5 클래스 페이지 수강
퐁당의 다양한 콘텐츠를 주제별, 대상별로 묶은 클래스 기능을 손쉽게 필요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 시청할 수 있다 (교회별 클래스 페이지 구성 가능)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끌리고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38)

퐁당 앱의 다양한 기능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태그
- 찜하기
- 좋아요
- 구독
- 다운로드
- 공유하기

각 콘텐츠에 달린 해당 태그를 누르면 검색이 되어, 같은 태그나 유사한 분류의 콘텐츠들을 검색해준다.

개인화 추천을 위한 선호도 표현으로 마음에 드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해당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를 통해 데이터가 없거나 Wi-Fi가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된 콘텐츠 목록을 볼 수 있다.

콘텐츠를 보다가 ‘찜하기’를 해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손쉽게 다시 볼 수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구독한 콘텐츠를 볼 수 있고, 해당 영상 시리즈가 업데이트 되면 알림을 준다.

콘텐츠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URL이 제공되어 좋은 영상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공동체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은혜의동산교회에서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줌(Zoom)과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임사역자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라서 활용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영상이 추천되거나 광고가 뜨는 등 아쉬운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만의 플랫폼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CGNTV가 풍당을 출시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시의적절한 기도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벌써 풍당에 빠지다

이규현 목사는 풍당이 특히 작은 교회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작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면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앙 영역을 목회자 한 사람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강사를 초빙하기도 어렵고요. 풍당이 좋은 강의와 설교를 제공하고, 작은 교회의 장점인 촘촘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목회자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동산교회에서는 벌써부터 풍당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풍당에 흠뻑 빠져있다.

“저부터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신앙생활의 첫걸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강의와 영상의 질이 남달라서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에 성도 80~90여 명이 나오시는데 풍당 클래스에서는 300~4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당과 함께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규현 목사는 한국 교회의 영성을 발굴해서 널리 알리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일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풍당이 정말 좋습니다.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과 깊은 영성을 가지신 목회자, 삶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을 발굴해서 풍당에서 소개해주시고,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부흥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의: 02-796-9800

장아브라함 목사(철원 군교회)는 제주도에서 강원도 철원을 오가며 군교회를 섬기고 있다. 철원 군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요즘 장아브라함 목사의 가장 긴급한 기도제목은 군장병들의 신앙생활이 침체되지 않고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장병들은 일과 시간 이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제한된 장병들의 신앙생활에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어도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위축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저의 가장 긴급한 기도제목입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기독 콘텐츠나 플랫폼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CGNTV가 품당을 출시했습니다. 가면에 단비, 사막의 오아시스가 이것 아니고 무

엇이겠습니까?”

장아브리함 목사는 풍당의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 중에서 직접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소통하는 ‘클래스’ 기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장병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이 세상의 가치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돈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장병들도 처음부터 재미있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을 풍당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장아브라함 목사는 풍당을 장병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이자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풍당’이라는 이름부터 재미있잖아요? 신앙이 있거나 교회를 다녀본 적 있는 장병들에게 풍당을 소개만 해줬는데도 알아서 잘 사용

하더라고요. 난생처음 교회에 나왔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장병들은 ‘새신자반 클래스’를 활용해서 신앙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장아브리함 목사는 더 많은 군 교회와 작은 교회에서 풍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목회자 한 명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까지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풍당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힘을 합쳐 더욱 풍성하고, 더욱 유익한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답해주는 콘텐츠, 청년들의 신앙 성장과 동시에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영어 성경 같은 콘텐츠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현 목사(은혜의동산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미디어 사역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90일의 기적, 그 못다 한 이야기

서지형, 정은숙, 엄재원 성도의 다짐 그리고 소망

90일의 기적이 지난 4월 3일(토) 끝났지만, 아직도 기적과 은혜의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지형 성도(대전 온누리교회)는 90일의 기적이 이어지는 동안 큰 사고를 겪었다. 그는 식품기업 영업파트에서 일한다. 업무 특성상 거래처와의 만남이나 회식이 잦다. 자연스레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하루는 회식하고 집에 가는 길에 술 취해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철심을 네 개나 박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면서 읽었던 ‘술 취하지 말라’는 잠언과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깨우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형 성도는 그 사고로 인해 생각과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술에 대한 경각심과 자제력에 갖게 됐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정은숙 권사(동대문중앙공동체)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90일의 기적에 참가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안개순원이 된 성도들도 있고, 어느 공동체에 소속해야 하는지 몰라서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소속감이 없고, 공동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정은숙 권사는 공동체에 소속 안 된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매일 올라오던 십자가 출석이나 ‘한 줄 소감’이 올라오지 않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연락했습니다. 직장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던 성도의 기도제목을 목사님께 재빠르게 알리고 함께 기도해줬고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어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은숙 권사의 노력과 그 고마운 마음이 통했다.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되었던 성도 13명이 공동체 등록을 했다. 90일의 기적이 끝나서 단체채팅방 활동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은숙 권사가 운영하는 단체채팅방은 아직도 활발하다.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 엄재원 집사(위).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고 있는 서지형 성도(아래)

“90일의 기적은 끝났지만, 저희는 <생명의 삶>으로 하는 새벽기도와 큐티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누구보다 가까운 공동체가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진짜 인생의 기적을 맞은 성도도 있다. 엄재원 집사(양재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엄재원 집사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에 참가하면서 두 가지 기도제목이 한꺼번에 응답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직장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가 끝날 무렵 몇 군데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재원 집사의 아내는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왔다. 엄재원 집사는 부부가 함께하는 달콤한 신앙생활을 꿈꿨다.

“저에게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순예배 드리고, 순장과 순모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싫어해서 혼자 순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순모 역할을 할 생각이 없어서 제가 순장도 할 수 없었고요. 게다가 아내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

습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눈물을 엄청 흘리며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재원 집사는 아내를 대하는 마음을 바꿨다.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선물하기도 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장모님께도 전화를 자주 드렸다. 자녀들이 자기 전에 안수기도도 시작했다. 엄재원 집사의 변화에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아내였다.

“아내가 제가 변하는 걸 느끼고 깜짝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와 사이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웃음).”

엄재원 집사는 90일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었다. 온 가족이 함께 365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새벽기도회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90일의 기적 덕분에 새벽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90일이 아니라 365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90일의 기적 참가자 간증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셨다!



손호영 집사
(강남A공동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봉사나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그동안 섬김을 받아오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지난해 안수집사 임직을 받았다. 기다리던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

었다. 그 실망도 잠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가 시작됐다. 그리고 곧바로 ‘90일의 기적’이 이어졌다.

나는 90일의 기적 공동체 성경일독 팀장을 맡았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쉽지 않았다. 단체채팅방에서 매일 해당 본문을 안내하고, 출석 및 한 줄 소감 등을 확인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모임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감사한 일이 많다. 우리 공동체의 경우 매일 단체채팅방 게시판과 댓글로 ‘한 줄 소감’을 달도록 했는데, 스마트폰이나 메신저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정확하게 따라주셨다. 공동체가 함께 동일한 말씀을 읽고, 은혜받은 구절과 소감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김승훈 목사의 섬김도 감사하다. 매주 모임을 오전과 오후에 진행해주셨다.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수고해주셨다. 설명은 또 얼마나 알차고 좋았는지 모른다. 1시간 30분에 걸쳐 성경 개요뿐만 아니라 핵심 구절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주셨다.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도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입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90일의 기적이 끝나는 시점에 아이가 우리 집으로 걸쳐 성경 개요만 아니라 핵심 구절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주셨다.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도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입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90일의 기적이 끝나는 시점에 아이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에만 머물러 있던 부족한 나를 90일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다듬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길을 걷고 싶다.



조은미 권사
(강동 온누리교회)

귀향(歸鄉)

코로나가 선물해 준 유배의 시간
일상이 빠져나간 험령한 시간 속에
먼저 쌓인 성경책을 펼친다

관계가 끊어진 황량한 폐허에 선다
혼자가 되는 시간
비로소 내 안의 나를 만난다
빈들에서 솟는 생명샘
꿀보다 더 달다
발목에 차던 물이
가슴까지 찬다
칼칼한 목을 적신 물이
막혔던 가슴까지 뚫는다

맑은 샘물에 나를 비취본다
욕심과 아집으로 일그러진 얼굴
어깨에 힘을 빼고
세상의 때로 더러워진 나를 씻는다

낮아진 자리에 선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
굳었던 심장에도 피가 돈다

새 옷을 갈아입는다
출구를 향하여
어둠의 터널 속을
빛을 거머쥐고 걸어간다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열등감을 하나님께 벗어던지자!

“나이가 들어도 시기심과 열등감이 없어 지지 않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부럽고, 좋은 회사 다니는 친구가 부럽고, 재테크 잘하는 친구가 부럽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저는 그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까지 가지면 제가 나은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기쁨으로 축복해주지도 못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열등감이 없어질까요?”

열등감이란 자기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저마다 열등감이 있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드러내면 남이 무시할 것 같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다.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비교의식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끝도 없이 비교한다. 누구 키가 더 큰지,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구 가족이 더 잘났는지. 비교를 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낀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아버지의 월급을 비교한다고 한다. 비극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애정결핍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

대로 빚어졌다. 사랑을 받아야 살아나고, 사랑받지 못하면 주눅든다.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면 애정결핍이 생긴다. 그 결핍이 열등감으로 이어진다.

열등감은 다섯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현실도피형이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은 일은 우선 피하고 본다. 엘리야가 대표적인 현실도피형 인간이다. 둘째, 낙담한 겉핥이형이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다. 스스로를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모험이나 경쟁을 피해 숨으려고만 한다. 무시를 당해도, 기분이 나빠도 참는다. 이길 자신이 없어서 싸울 생각도 하지 않는다. 셋째, 유머형이다. 큰 웃음과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 한다. 약점을 들켜니 한 번 망가지고 말겠다는 작전이다. 넷째, 쫓대 상실형이다. 열등감은 자존감과 반비례한다. 열등감이 높으면 자존감이 낮다. 남의 눈치 보느라 본인 주관 없이 다. 이리저리 휘둘린다. 다섯째, 공격형이다. 열등감은 분노를 잔뜩 머금고 있다. 본인의 열등감을 들켜지 않으려고 타인을 공격적으로 쏘아붙인다. 몇 해 전 강남역에서 일어났던 ‘묻지마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했던 남자가 그 분노를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에게 푼 것이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인생길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열등감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열등감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몸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대신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척한다. 괜히 부자인 척, 괜히 교양 있는 척, 괜히 괜찮은 척한다. 위선으로 감추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 낫다. “나 대학 안 나왔어”, “내가 잘 생긴 건 아니지”, “나 지금 백수야”라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다. 나의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지만 들춰보면 그만한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둘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한다. 세상의 눈으로 점수 매기듯이 뜯어보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보자. 꽤 괜찮은 모습일 것이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별로인 사람이 없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 잘 될거야”라고 하루 세 번,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자.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 왕은 다윗에게 큰 열등감을 느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심해져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 잘못된 비교는 상대에 대한 증오를 낳고, 현재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만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 좋겠다. 열등감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았다면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등감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 씩씩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장점이 분명히 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되 나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된다. 열등감을 하나님께 벗어던지자. 당당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정환 목사
(송파B공동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 저자)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지혜로운 ‘직면’, 전문적인 ‘도움’

“우연히 남편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는데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남편은 아직 제가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백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 합니다. 남편이 미워죽겠기도 하고,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아이들 걱정에 눈물만 흘리는 날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관계에서 외도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는 배우자의 부정(denial)을 의심하고 증거를 찾는 단계를 밟는다. 외도하는 배우자에게는 생활 패턴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한 변화들이 쌓여 의심되고, 증거들이 모이면서 확신한다. 비교적 잘 지냈던 부부라면 외도가 벌어진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나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라면서 현실을 부인하는 심리적 시도를 하게 된다. 외도가

확실해지면 배우자에 대한 분노, 극도의 실망, 상실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표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의 성향, 신념, 자아의 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경우’와 ‘외도를 숨기고자 하는 경우’이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외도를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회피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직면하는 것이 외도를 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와 가정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직면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신앙공동체에서의 평가, 자녀들의 미래, 주변 가족들의 평가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취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직면할 수 있는 것이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난 다음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비난과 함께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평소에 잘해주지 않아서 남편(아내)이 외도하지 않았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곡된 인식과 평가다. 외도를 저지른 사람의 잘못이다. 피해 배우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외도한 당사자가 약속을 깬 것이고 신뢰를 깬 것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외도가 어느 정도 객관화되면 부부의 친밀감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자책으로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크리스천 상담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노력이 효과적이다. 외도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져야 할 짐이 있고, 누군가와 함께 져야 할 짐이 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외도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무거운 짐’이다. 외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크리스천 상담자에게 도움을 받는다 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크

리스천 상담사를 찾을 때는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지인은 피해야 한다. 또한 사역자에게 외도 문제를 나누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가까운 사역자의 도움으로 외도 문제를 잘 해결했으나 회복된 이후 밀려오는 수치감과 민망함 때문에 섬기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외도 문제에서 회복된 다음과 부부의 결혼관계가 재구성된 후에도 계속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는 틀림없이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상황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주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을 충분히 돌보고, 상황을 객관화하다 보면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삶으로 나타내는 ‘부활의 능력과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잔느 귀용 저 | 생명의말씀사 | 15,000원

지난 사순절 우리는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만남으로 이어져야 한다. 십자가란 단지 죄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주 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잔느 귀용의 영성 관련 책은 17세기 존 번연의 〈천로역정〉,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과 더불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특히 1685년 쓰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더 깊은 사귄으로 인도하는 고전적인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서전에 해당하는 〈잔느 귀용부인의 생애〉(도로시 고온 커슬릿 저, 기독교문서선교회)와 함께 읽으면 더 좋다.

모진 고난과 형극 속에서 생명의 꽃을 피운 잔느 귀용은 7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다.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불과 16살에 22살 연상인 병약한 남편과 결혼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모진 학대와 시집살이는 여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우연히 수도원의 프란치스코 수사에게 자신의 고통을 상담했는데 그 수사에게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때부터 잔느 귀용은 영혼의 화심을 경험하고 내면의 골방에서 내주하는 주님(the interior Christ)을 만나며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

잔느 귀용은 “만일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

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신비적 체험을 이야기한다. 잔느 귀용은 지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한다고 역설했다. 오직 내면세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성경을 묵상하는 법,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방법, 분산된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더 깊은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는 비결이 자세하게 소개되어있다.

잔느 귀용이 살던 17세기 프랑스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루이 14세가 절대적인 권력으로 국가와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고 깨어났을 때조차 프랑스는 영적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프랑스를 휘감고 있는 암울한 시기였다. 그때 신비주의에 해당하는 그녀의 강론과 책이 들불처럼 번졌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국가와 교회가 잔느 귀용의 책을 수거해 불태워버렸다. 잔느 귀용의 모든 설교와 강의를 금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잔느 귀용의 책

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국가와 교회가 잔느 귀용을 악명 높은 감옥으로 보내고 비참하게 살게 했다. 하지만 잔느 귀용은 죽음과 고문 앞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잔느 귀용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귄을 가졌다. 깊은 영혼의 감동을 주는 책들이 가장 모진 박해 속에서 탄생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잔느 귀용의 책은 청교도와 웨이커회도,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존 웨슬리, 허드슨 테일러 등 수많은 기독교 운동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신앙의 교리와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잔느 귀용의 책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선포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상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가기를 소망한다.



김상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

6개의 점을 이용해서 글자를 표기하는 한글 점자는 1926년 반포된 ‘훈맹정음’에 근간을 두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만들었다.

박두성 선생은 강화도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1913년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활동했다. 맹아부 첫 번째 교사였던 박두성 선생은 청각교육에 집중된 시각장애인 교육의 한계를 느꼈다. 점자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낀 박두성 선생은 일본식 점자인쇄기를 들여와 점자교과서를 출판했다. 당시 조선에는 로제타를 선교사가 보급한 미국식 4점자와 일본어 6점자가 전부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가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없애려고 하자 박두성 선생은 한국어 점자를 만들어 보급해야겠다고 결심한다. 1920년부터

제자들과 연구를 시작한 박두성 선생은 1926년 11월 4일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한글 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보급한 훈맹정음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박두성 선생의 신앙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박두성 선생의 일가는 강화도 상용리에서 존스 선교사에 의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장녀의 간증에 따르면 박두성 선생은 성경 점자를 만드는데도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박두성 선생은 점자 성경과 찬송을 우편으로 돌려 시각장애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헌신했다. 박두성 선생이 제작한 점자 성경은 6.25 전쟁통에 불타버렸지만, 훗날 박병일 점역사(글을 점자로 번역하는 사람)가 점자 성경을 완성했다.

불만한 영화 〈미나리〉

흔한 가족의 귀한 사랑이야기

미나리는 어디서든지 잘 자란다. 가족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너무 힘겨워도 가족의 사랑은 거짓말처럼 싹을 틔운다. 영화 미나리는 흔한 가족의 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아빠 제이콥(스티븐 연), 엄마 모니카(한예리), 외할머니 순자(윤여정), 아들 데이빗(알란 S. 킴), 딸 앤(노엘 조)의 삶을 담고 있다. 제이콥은 캘리포니아에서 10년 동안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다가 큰 농장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가족들과 미국 남부 아칸소로 이주한다. 제이콥에게 기쁨진 아칸소는 기회의 땅이었지만 아들 데이빗의 심장병을 걱정하는 모니카에게 외진 아칸소는 위기의 땅이었다. 서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민

간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부부의 위기와 가정의 불안이 계속될수록 제이콥은 농장에 집착한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아이들의 외할머니 순자를 초청하고 지역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에 기대보지만, 부부의 위기는 점점 더 커진다. 현실에 지친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제이콥 부부의 아픔은 시대의 초상이다. 가족의 위기가 극에 다다른 영화는 미나리밭에서 막을 내린다. 영화 미나리에는 책임감, 희생, 이해, 용서 등 많은 사랑의 형태가 담겨있다. 전혀 새로운 것 없는 가족의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 미나리가 85개의 상을 수상하고, 극장가를 휩쓴 이유가 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진리의 문

꿈을 꾸고 나서
설레는 가슴은
하늘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고 황홀해서이리

지휘자가 손을
올린 채 멈추었다
대단원의 막이 내린 연주회장
심오한 여운 가운데
진리의 문이 열리리

얼마나 큰 은총인가
문이 열려진 이
더욱 큰 축복이지
아주 오래오래
그 안에 사는 이



코로나19, '지구촌 이웃들'과 극복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선교지 환우 지원

올해 1월 초 남수단 캐세리2 장로교회 베티 성도가 피를 토하는 등 상태가 안 좋아서 주바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아와디아 목사님과 함께 1월 내내 베티 성도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다.

가난한 과부로 두 명의 아들과 함께 사는 베티 성도는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수년 동안 병을 방치했다. 병원에서 검진을 해봤더니 간경변이었다.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지속적인 혈액(흔치 않은 Rh-A형)을 공급받거나 간을 이식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기적적으로 혈액은 행에 연결되어서 혈액 한 봉지를 수혈받았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복수가 차오르고, 온몸이 붓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무작정 주바대학으로 달려가서 학생들을 붙들고 혈액형을 물었다. 어느 학생이 “바로 조금 전에 적십자에서 헌혈을 했으니 그곳으로 가 보라”고 했다. 적십자에서 헌혈을 마치고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베티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필요한 혈액형을 가진 의대생이 피를 나눠줬다. 병원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수혈을 받은 베티의 화색이 금세 돌아왔다. 할렐루야!

어느 날은 베티의 병문안 갔다가 아와디아 목사님이 어깨가 아프다고 했다. 그때 칼리라



NGO 더멋진세상의 후원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베티 성도(남수단 캐세리2 장로교회).

는 중국통역사가 말을 걸어왔다. 칼리에게 아와디아 목사님의 상태를 말했더니 우리를 최신 X-레이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무료검사와 약까지 처방해줬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다. 아와디아 목사님과 나는 미소를 가득 머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리쳐 찬양했다.

병원에서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면 베티

성도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래도 방도가 없을까 싶어 전문사립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 보기로 했다. 여러 검사 중에 내시경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비용이 200달러에 달했다. 다음 날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고 돌아가는 길에 중국통역사 칼리에게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칼리는 중국에서 내시경 기구가 도착해서 진료하고 있다며 다음 날 바로 검사

를 무료로 받게 해주었다.

검사결과는 좋지 않았다. 베티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먹고 편히 지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베티 성도의 형편을 알리며 기도를 부탁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셨다. NGO 더멋진세상은 베티 성도의 치료비와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나도 그 마음을 품었다. 베티 성도는 퇴원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며 이런 사랑은 처음 받아 보았다고 고백했다. 며칠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혈액을 구해 3번째 수혈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주님께서 카타르 한인교회와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3월 20일부터 각 교단 산하(장로교, 오순절교, 성공회, AIC, SCOC)의 9개 교회에 1,260명분의 옥수수가루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 고아, 과부, 가난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옥수수가루를 나눴다. 남수단에 처음 도착한 때부터 복음과 함께 빵을 전하고 싶었던 나의 기도에도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 정은희 선교사(남수단)



코로나19, '나눔'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굿윌스토어 기증캠페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온누리교회에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 굿윌스토어 기증캠페인 보고를 드립니다. 매년 20개 정도 교회가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누리교회의 드라이브 스루 굿윌스토어 캠페인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회가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한 드라이브 스루 굿윌스토어 캠페인 소식을 듣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온누리교회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이 예배당이 아니라 야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원 배치도 예년과 다르게 최소한으로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의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 온누리교회 드라이브 스루 굿윌스토어 기증캠페인.

광주리가 넘치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2019년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를 합쳐서 1톤차 4대 정도의 물품을 기증해주셨는데, 지난해에는 1톤차 9대가 넘을 정도로 많은 물품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수원, 강동, 인천, 대전, 평택, 부천 온누리교회에서도 굿윌스토어 기증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을 일찍부터 기다렸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계신 봉사자님들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넘치게 채워 주시라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한 가지 변화는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정리

를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굿윌스토어에 물품이 부족하지 않게 기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점차 물품 기증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굿윌스토어에서는 올해 3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현재 10개 점포에서 25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올해 3개 점포를 더 내서 3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매출 목표가 100억이었는데 82억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올해 매출 상황을 보면 곧 100억 달성을 처음으로 달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이재훈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 홍세원 원장(말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열아홉, 기념하고 기억하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9주년



사진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9주년 기념행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9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4월 1일(목) ‘열아홉, 기념하고 기억하다’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됐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9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대표이사의 축사, 복지관이 개관한 2002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르신들과 함께했던 추억 영상 상영,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영상 상영,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온라인 이벤트 등이 실시되

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9주년 기념이벤트는 4월 16일까지 이어진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카카오프러스친구나 문자메시지(010-2308-6100)로 응모할 수 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9주년 기념이벤트는 세 가지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생일이 같은 4월 1일생 어르신들을 찾는 이벤트, 지난 19년 동안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즐겨왔던 추억이 담긴 사진

을 응모하는 이벤트, 어르신들의 학창시절 사진을 응모하는 이벤트가 그것이다. 이벤트 참가자 중 19명에게 풍성한 선물을 준다.

송영범 대표이사(온누리복지재단)는 “어르신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9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모두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렸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약속했다. 문의: 02-794-6100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기독교상담학과에서 ‘노인상담’ 온라인 세미나를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개최한다. 노인기에 맞이하는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혹은 가족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건강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다. 한성열 교수(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강의한다. 회비는 15만 원이다. 4월 13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재무심리 테라피’가 4월 24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재무심리 테라피 세미나는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이다.

정우식 대표(NPT연구원장, 한경대 겸임교수)가 강의한다. 재정을 원하는 가정, 돈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풍성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4만 원이다. 4월 16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7



은퇴 여선교사들의 삶을 이야기한 CGNTV다큐 ‘کم, 흙’.

독신여선교사 은퇴관 건립

CGNTV 여선교사 숙소 건립 모금 캠페인

CGNTV가 강원도 문막에 ‘독신여선교사 은퇴관’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한다. 독신여선교사 은퇴관은 선교와 이웃사랑을 위하여 한평생 헌신한 독신 여선교사들의 노후를 위한 공간이다. 주선에 교수의 현금과 제안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CGNTV는 “선교사 은퇴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갈 곳 없는 독신 여선교사들에게 안식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계좌: 농협 351-1176-6466-93
사단법인 세빛자매회

온누리 세계관학교 ‘온라인 북콘서트’

4월 20~21일, 27~28일 온라인(Zoom)

온누리 세계관학교(OWA)에서 온라인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4월 20일(화)과 21일(수), 27일(화)과 28일(수)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충돌하는 세계관>을 번역한 류현모 교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강의한다. 신학과 역사학으로 보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2-3215-3637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상담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등록교인으로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성도이다. 서류는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참조),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졸업증명서, 임상경력증명서(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 등이다. 수련 비용은 한 학기당 30만 원(총 2학기).

문의: 서빙고 010-4215-3675, onnuriccc@gmail.com

양재 010-4684-7536, onnurijcc@gmail.com

헬로맘 수강생 모집

4월 16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시 온라인

‘헬로맘-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브런치타임(이하 헬로맘)’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헬로맘에서는 ‘생명의 여인 한나’, ‘창조적으로 섬긴 수넵여인’,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었던 행복한 여인 마리아’, ‘세상 속 영향력 있는 자녀로 키운 요게벳’,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4월 2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2716-2736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4월 17일부터 매주 토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은 부모와 자녀가 더욱 친밀해지고, 건강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돕는 과정이다. 참가신청은 4월 2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2647-5435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5월 15일부터 매주 토 오후 4시 30분 온라인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으로 강의한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자아상 회복’, ‘못다 한 우리들의 이야기(힐링 터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를 이어간다. 수강신청은 5월 1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2539-5665

일대일 수료 명단

일시: 4월 18일(주일) 3부예배

장소: 오전 11시까지 해당 캠퍼스(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대상: 2월 1일~3월 3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

가정사역 김유경 우윤지 정진아 연미영	북누리 서용식 김현준 이주리 박현숙	양천 김형민 정도영 신용호 김득신 이희성 신재열 정홍근 조학래 황옥찬 박용철	이중하 양충현 정윤주 강진경 최규식 주영진	<대학청년> 길 강창민 주영진 유선미 박은혜
강서 이원석 동두봉 이형욱 문성희 황금복 오연수	서대문 서용호 김재호 이한오 이상경	영등포구로 고은정 김주은 서대환 최상신 서은영 김영미 이정민 도전복 정청산 임선양	중종로 신영근 이재욱 조미경 조명자	요셉 강하정 전성례
관악금천 전병승 황태웅	서빙고 이승주 광승남 최은선 최미정	영등포구로 고은정 김주은 서대환 최상신 서은영 김영미 이정민 도전복 정청산 임선양	찬양사역 심혜영 김지연	CHPLUS 정혜은 윤문경
김포 차준호 정준영 차지호 정우균	성동광진 김용화 장창근 김은주 박진희 명제연 김상우 이다현 강해원	용산 이미성 최경희	특별한초대 김선영 조선영 임그린 진효진	Pole2 임가은 박진영
노원 박소연 나순임 이현석 이용호	성북 최신영 박경남 최영진 성지은 최은영 권혜선	이수 김옥하 박석재 최민희 최영주 황상두 신광필 황진자 오명자	한강 박성철 한정훈 이정아 박유경 한세훈 전용우 홍성필 이한주	SNS 김선정 권민정 김유진 방주희 문혜영 배현미 방선혜 어원경 이경수 안길수 이혜린 한은희 임나현 정기숙 전해진 박명애 정은진 김준자 최서영 강금희 홍재역 한민협
동대문중앙 류현진 김용곤 송영미 이연미 이인형 김정민	신용산 김종현 박종영 이정례 유혜리 정연태 문 찬	이초 남미선 한미연 신도희 지승빈 이은주 홍인숙 이정훈 이기영 임우빈 김성일	강북 김지희 윤여희 김대훈 최병선 정기욱 김현주 정희정 강민주 최우영 박요한	공동체 없음 박민경 최원경 최승연 최현숙
동작 김수연 강은실 김은현 안선주	여의도 이강호 정세영	일산 김준형 장영배	공동체 없음 한태희 박래석	
마포 윤자영 정명순				

세례 간증



/ 이현선 성도(노원공동체)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두 아이를 행복하게 양육하고 있는 엄마다. 결혼 후 2년 만에 첫째를 낳았다. 임신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남편과 나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아이의 이름을 ‘주안’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몇 년 뒤 남편이 아버지 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주안에게 편지를 썼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주신다면 동생 이름을 주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로 ‘주희’라고 지을 거라고 당당히 적었다.

주안이를 낳고 누군가 기도제목을 물어오면 항상 둘째 임신을 부탁했다. 그런데 생각만큼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다.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서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입덧도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잦은 하혈과 전치태반 진단을 받아 유산의 위험도 있었다. 첫째를 양육하면서 직장생활도 해야 했던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이었다.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며 주희를 만났다. 성가대원이었던 나는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주희가 세상에 나오는 막달까지 성가대 옷의 단추를 조절하면서까지 찬양할 수 있었다. 배 속에서 함께 찬양해서 그

런지 주희는 목소리가 우렁차고, 음악이 나오면 엉덩이를 들썩거린다.

첫째 주안이는 자연분만을 했는데 둘째 주희는 태반이 자궁을 막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수술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자연분만을 하게 해달라고 매달렸는데 끝내 수술해야 했다. 주희의 임신과 출산이 모두 나의 계획과 기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완벽한 타이밍과 최고의 계획이었음을 이제야 믿는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이고 주위에 도움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지만 다행히 든든한 큰 아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 또한 직장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는데 1년 6개월 육아휴직 동안 참 안식을 얻었다. 지금은 복직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의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도 삶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겠다. 나와 우리 가정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안이와 주희를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드림어게인스쿨’ 스태프 간증



/ 나지원 집사(가정사역공동체)

2009년 전 남편의 외도로 12년 결혼생활을 마쳤다. 이혼하고 얼마 뒤 온누리교회 토요DRS(Divorce Recovery School)예배를 소개받았다. 그해 가을 14기 드림어게인스쿨(구 이혼자행복학교)을 수료했다. 토요DRS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한 5주 동안의 드림어게인스쿨은 원가족부터 결혼생활과 이혼에 이르기까지 내가 모르고 있던 나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응급실 같은 곳이다. 드림어게인스쿨에 참여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이 변한다. 식사, 찬양, 간증, 강의, 그리고 나눔을 통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계도를 통한 원가족에 대한 이해’, ‘자아상 회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 인생에 일어난 큰 일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이들이 있어서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0여 년 전 극동방송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프로그램에서 드림어게인스쿨을 홍보했던 적이 있다. 며칠 뒤 어느 자매님에게 연락이 왔다. 남편의 이혼 강요로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산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극동방송에서 드림어게인스쿨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방송이 마치 용기 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는 말로 들렸다고 했다. 그 자매님은 드림어게인스쿨을 수료한 뒤에도 몇 년 동안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자신처럼 이혼으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혼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속히 다른 사람을 만나 상처를 덮어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결혼에 두 번, 세 번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드림어게인스쿨을 통한 체험은 나를 과거로부터 회복시키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준다.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이혼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을 기피하고 내 안의 동굴로 들어간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든지, 혼자 건강한 모습으로 살든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직면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해답이다.

시드니 온누리교회 와이미션



/ 한덕호 성도(시드니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르치시며, 삶을 나누는 모습이 떠오른다.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열정, 기쁨, 소망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와이미션을 수강했다.

선교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이자 열매다. 나는 성경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여겼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시드니 온누리교회 와이미션 과정을 수강하면서 캐머런 타운센드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는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믿음이 확고하고 한

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쁨과 기대감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낯선 부족의 언어를 익히고, 문자를 만들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마치고 또 다른 부족을 향해 떠났다. 캐머런 타운센드는 일생에서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았다. 캐머런 타운센드의 신앙의 덕목이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다.

와이미션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우리는 왜 사는가?’, 둘째,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셋째, ‘선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이다. 나는 그 어떤 열매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힘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을 깨닫는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것을 약속한다.

대학청년부 CDC 수료 간증



/ 이수진 자매(Pole2청년부)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과정을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큐티 30회, 새벽기도 20회, 보고서 8회라는 이수 조건을 보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지레 겁부터 먹었다. 그래도 부담 가득했던 과제들을 하나둘씩 해가며 어떻게든 완수해낸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든다. 사실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CDC 과정을 듣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그만큼 CDC 과정이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CDC 과정에서 들었던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의 감시하에 살아온 탓에 말씀 묵상은 나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숙제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생각은 CDC를 수료하게 된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CDC 강의를 들으면서 큐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매일의 말씀 묵상이 습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또한 솔직하지 않은 고백일 것이다. 그래도 정말 좋았던 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큐티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이 현재 신앙적으로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매일매

큐티라는 거울

일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 19 시국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것과 함께 큐티가 맞물리면서 많은 성찰과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매주 CDC 과정을 들으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과정이 즐거움 그 자체였다. 신학, 철학, 종교학 분야에 관심이 커지고 있던 터라 신앙의 뿌리를 밑바닥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도전하는 계기도 되었다. 하나같이 크고 방대한 주제들이라 50분 짧은 시간에 내용이 모두 담기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아쉬운 만큼 스스로 궁금한 점과 그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매주 제출하는 보고서에 정성스레 피드백을 적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 요즘 신앙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단절과 외로움이 심한데 많은 생각과 의견, 감정을 담은 글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목사님들과 동역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싶다.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미얀마를 위한 기도

미얀마 백성들에게 또 빛을 지고 있구나!



채현석 선교사
(2000선교본부)

우리는 모두 빛을 지며 살아간다.
하나님에게 일만 달란트의 빛을 얻어
햇빛과 공기와 물이며 만물을 사 먹는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빛을 지며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찾는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민주, 인권에 대해
저 선각자들과 항일민족운동 선열들,
4.19 혁명 열사들, 5.18 민주화 투사들,
6월 항쟁의 민초들 하나 하나에게
한없는 빛을 지고 오늘을 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위해
오늘 그 누구에게 빛 값을 생각 하나 없이
삶의 수레바퀴를 진흙탕 속에 굴러 가는데
느닷없이 저 멀리 미얀마 백성들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참혹한 빛이 쌓여간다.

한 잔의 우아한 커피에도 배어 있는
검은 형제들 지난한 노동의 눈물이며
저 아프간, 시리아, 이라크의 피난민들
세상의 억압받고 굶주리며 죽어가는
온갖 형제들의 영혼에 진 빛 시퍼런데
이제 또 새로 쌓여 가는 빛을 어찌하나!

최치원 선생의 토황소격문 같은
간담이 서늘하도록 서슬 퍼런 글을 지어
저 미얀마 군부의 총칼 앞에 내밀었으면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UN
소위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당신들이 쌓아가고 있는 빛이
언젠가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 완고하고 몰인정한 턱을 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까?
저 조선의 선비들 목숨 던져 아뢰던 상소처럼
하늘 아버지에게
“아니 되웁니다! 저 군부의 총칼을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을 구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의 죽음을 고치시고
눈물을 씻어 주소서!” 강청하면 될까?

우리에게 총칼이 없고 총칼 쓰는 것을 금하셨으니
우리의 알량한 몇 끼니 먹을 것이라도 금하여
하늘 아버지께 바쳐 올리면
미얀마 저 백성들에게
마음의 빛이라도 조금
값을 수 있을까? 답답하여라.

권사칼럼

삶과 죽음의 의미



송현자 권사
(부천 온누리교회)

요 며칠 등 쪽
에 가벼운 통증
이 계속됐다. 통
증의 정도는 심
하지 않았다. 참
을 만해서 관촬
아지겠지 싶었
는데 일주일
이 되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걱정됐다. 병원

에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부터 했다. 내 증
상을 검색해보니 척장암이라는 단어가 포
착되었다. 무엇이든 쉽게 결론에 도달하려
는 습성 탓에 나는 이미 내 증상을 척장암
으로 결론짓고 있었다. 그 단어와 함께 평온
하던 일상이 끊어지고 균열을 일으켰다. 순
식간에 여러 생각에 사로잡혔다. 정확히 4
년 전 이맘때 병명도 생소한 간농양으로 한
달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았던 일
과 먼 조카뻘 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의 난소암 소식을 들은 직후이기도 해
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도 모르겠다. 병
원에 가보지도 않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
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이게 최선인가요?”

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중
지되고 교회 예배마저 영상 예배로 전환되
면서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하루 3시간씩
일상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었다. 곧 있으면
그 기도가 1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하
나님을 향한 나의 질문은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온 대가가 이겨나고 따져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생각이 바뀌
었다. 더이상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다. 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 되던 순간을 싸구려 장사꾼
처럼 거래하려 했다. 더구나 하나님을 빚쟁
이 취급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뭐라
고 이런 자만을 부렸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은 언제나 옳으시
다. 그 자체로 선이시고 또한 진리이시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
이라면 그것은 나에게도 최선이자,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생각이 정
리되자 이상하게 더이상 감정의 동요 같은
것은 없었다. 나의 이런 태도와 마음은 지난
1년 동안의 기도가 바꾼 변화이자 간증이
다.

나는 본래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소심
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 늘 남보다 못하
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왔다. 나를
재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불
안한 청춘의 불온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었
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
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금은 아주 더
디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죽을 병을 떠올
리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할 수 있
게 되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다행히 병원 검사 결과는 많은 생각과 걱
정에 비해 싱거웠다. 혈압이 조금 높지만 내
장기관은 아무 이상이 없다. 언제나 우리
가 가까이에 있지만 한사코 모른 채하고 상관
없는 척하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
게 닥칠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
상한 이번 일이 정말 유익미했다. 죽음을 생
각하는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 사람
들과 같을 수 없다. 나의 삶의 의미는 복음
의 통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자, 예
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아직은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인 듯싶다.

새 생명이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 죽음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병
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때 이른 벚
꽃이 날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날리고 있었다. 소멸하는 아름다움
으로 흠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장로칼럼



김영환 장로
(OCC공동체, 일만
사역팀)

몇 년 전 아프리카 A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본인이 돌보는 Z
자매가 현재 한국에
있으니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내
와 함께 만나 식사도
하고, 마침 OCC공동
체에서 A국에 아웃리
치를 가게 되어 아웃
리치팀 앞에서 A국
소개 등을 부탁하기
도 하며 교제를 했다. 그 사이 우리는 몰랐지만
Z자매는 서빙고 아랍어 예배에 출석하고 있었
다. Z자매는 아랍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
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결국 온누리M

미션을 섬기시는 노규석 목사님으로부터 세례
까지 받게 되었다.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나아오
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이슬람권이기에도 오랜
시간 아랍어예배를 섬기신 신현승 장로님과
스태프들의 기쁨은 아마도 우리 주님의 기쁨
과 같았을 것이다.

그 후에도 Z자매는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보
육원 봉사에도 함께 가는 등 우리와 교제를 나
누었지만 한국 땅에서 직장생활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결국 A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
는 Z자매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 후 Z자매를 부탁하셨던 선교사님
을 통하여 듣게 된 소식은 놀라웠다. 한국에 있
을 때만 해도 믿음의 초기 단계였던 자매는 모
국에 돌아가 선교사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
어 있었다. 이슬람권인 A국에서 여성이 직업

을 갖고 보람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다. 하지만 선교사님 부부가 운영하시
는 문화센터와 아학은 한국을 경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Z자매에게는 새
로운 삶이 열리는 놀라운 기회의 장이 되었다.
새해 첫 날 곁에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만
들어 소개도 하고 한국말을 가르치기도 한다.
또 재봉틀로 마스크를 제작하거나 면 생리대
를 만들어서 배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
러내지 않고 알리는 일을 하는 등 각종 사역
사진에는 빠지지 않고 Z자매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지금도 Z자매
는 내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곤 한다. 그
다지 큰 도움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매에게는
참 고맙게 느껴졌던 것 같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

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신다. 어떤 사람
이 만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자 그
만아들이 싫다고 하고는 뒤에 뉘우치고 일하
러 갔지만, 둘째 아들은 똑같은 아버지의 요청
에 “예, 아버지”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얘기하
고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
시며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
였는지 물으신다.

우리는 늘 교회에 나오지만 때로는 주의 말
씀에 입으로는 순종하면서도 실제로는 따르지
않기도 한다.

Z자매는 본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결
국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
에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주께서 보시기에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부활 신앙을 시험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골 3:1~2).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들은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이들이기에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요 16:23).

‘그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제자들 안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늘 엉뚱한 대답과 질문을 했습니다. 엉뚱한 생각과 계획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못 들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산상수훈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삶이 그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는 과거의 역사나 전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구하라.”

모든 말씀이 처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효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특징입니다.

셋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책만 보고 모든 일상의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 반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모든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패션(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 참혹한 고난을 패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열정입니다. 어떻게 한 단어가 고난이 되기도 하고, 열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비슷한 뜻의 단어로 파생됩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삶을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삶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

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연약함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모든 삶의 패턴이고, 능력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4절).

이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시험이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함 속에서 도리어 체험해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시험 속에서 끊임없이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육체의 질병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문제든, 이 시대의 역사의 문제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이든 우리의 대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입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재산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말씀이 곧 돌파구!



〈한계란 없다〉

곽상학 저 | 두란노 | 12,000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삶의 한계를 헤쳐나갈 길을 쥐여준다. 굳게 닫힌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풀어나간 이 책을 읽다 보면 절망적인 인생의 한계들을 돌파하는 힘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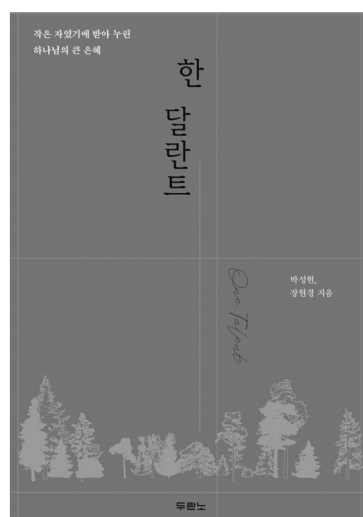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시 119:96).

책 〈한계란 없다〉의 표지에 적힌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 책의 주제다. 이 책은 수많은 인생의 한계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책 〈한계란 없다〉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 온 저자가 쓴 글답게 통통 튀는 상상력이 가미된 어렵지 않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화, 소설, 신조어, TV 프로그램 등 흥미를 끄는 재미난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책장을 계속 넘기게 만든다.

이 책에서는 신앙의 네 가지 핵심인 ‘십자가’, ‘찬양’, ‘복음’, ‘믿음’에 대해서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지상 최대의 역설, 십자가’,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반전, 찬양’, ‘하늘 너머를 보는 통찰, 복음’, ‘놓을 때 얻게 되는 모순, 믿음’을 주제로 인생에서 만나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작은 자의 고백 “순종의 발걸음”



〈한 달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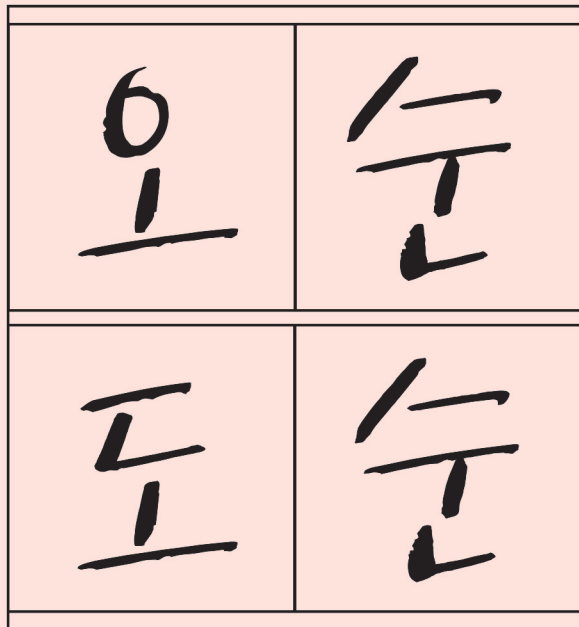
박성현, 장현경 저 | 두란노 | 12,000원

걸어온 순종의 발걸음을 책 〈한 달란트〉에 담았다. 저자 부부의 삶은 작은 자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고 떠난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난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장 장사를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책 〈한 달란트〉를 쓴 박성현, 장현경 선교사 부부는 자신들을 “한 달란트 받은 작고 연약한 자”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저자 부부는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는 달리 받은 달란트를 개수하기보다 누가 그 달란트의 주인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작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그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자 부부가 걸어온 순종의 발걸음을 책 〈한 달란트〉에 담았다. 저자 부부의 삶은 작은 자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오늘도 순식간에



도서 한 권 순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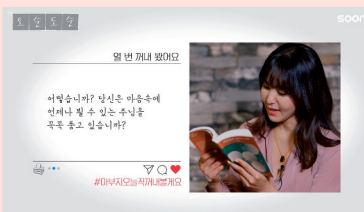
셀럽의 목소리로 듣는 책 한 권,
매달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옵니다.

4월의 낭독자 : 방송인 박지윤

4월 3일 책 소개 4월 17일 낭독편

격주 토요일 오전 7시 업로드

유튜브 CGNTV SOON 채널 검색



4월의 도서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이재철 목사 저 / 홍성사

싱어게인 우승자 '가수 이승윤'과
유튜버 '천재 이승국'의 아버지
이재철 목사의 자녀 교육 이야기



모바일에서 '다모음' 앱 다운받아 간편하게 CGNTV 후원하기
'다모음' 앱 설치 후, CGNTV 후원하기 선택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퐁당 Fondant' 앱 다운로드하기

